

用里 高聖謙의 詩史詩와 樂府詞에 대한 考察

崔 載 南*

1. 序 論

本考는 用里 高聖謙(1810~1886)의 詩史詩, 樂府詞, 古樂府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用里 문학의 성격을 해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用里는 字를 穉希, 이름을 聖謙이라 하여 江右의 商山의 북쪽에서 純祖 10년 庚午(1810년)에 태어나 高宗 23년 丙戌(1886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號를 錦洲라 하며 鄭必奎의 門人으로 이름은 夢贊이다.¹⁾ 用里에게는 文集으로 14권 7책의 用里集²⁾이 있다.

用里의 文集인 用里集의 內容을 보면 賦 2편, 詩 213題, 東國詩史 19首, 樂府詞 36편, 古樂府 43題, 輓詩 38題, 書 94편, 傳 4편 등을 비롯해서 序, 記, 跋, 論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는 이 가운데서 단군신화부터 병인양요까지를 다룬 詩史詩 '東國詩史', 浣溪沙로부터 風入松까지의 '樂府詞' 36편, 漢陽의 文物을 보고 읊은 '漢城樂府' 28章을 포함한 '古樂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蓮桂社, 龍溪社, 龍門社, 素里社, 蓮社 등의 詩社에 대하여 시를 읊은 분위기를 중심으로 함께 이해하도록 한다.

조선후기의 漢詩의 변화 과정은 사회의 변동과 함께 조선전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沈慶昊³⁾에 따르면 조선후기 漢詩論의 중요한 특징으

* 박사과정

1) 用里集 附錄 行狀 및 墓碣銘, 墓誌銘.

2) 국립도서관 소장, 14권 7책.

3) 沈慶昊, "조선후기 한시의 자의식적 경향과 해동악부제", 韓國文化 2,

로 다음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인식주체로서의 시인의 자리에 대한 검토, 둘째, 道보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시풍, 셋째, 자유형식의 실험과 표현방식의 공부 등이 그것이다. 첫째는 杜詩에 대한 반영론적 해석에 기초하여 詩史 작품의 출현을 들고 있고, 둘째는 載道之文에서 벗어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글의 도입을 분명하게 하는 사실주의 문론을 주장하고, 셋째는 정형성을 벗어나 고시나 장형의 고시를 많이 짓고 서술서정시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후기 漢詩의 다양화와 더불어 민요취향도 대두하고 잡가체가 활발하게 등장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경향과 詩社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녹리의 경우는 조선후기 한시의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詩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실험했다는 점에서도 그 특색을 알 수 있다. 詩史詩로서의 東國詩史, 民歌風의 樂府詞, 紀俗樂府로서의 古樂府 등을 비롯하여 遊淸涼錄, 觀海錄, 夢遊金剛錄 등의 紀行詩, 敬次首尾詩(권 2)에서 볼 수 있는 首尾詩, 夜話를 비롯한 詩社에서 벗들과 함께 交遊하면서 읊은 시 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조선후기 한시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변모를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녹리 문학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文學에 대한 인식과 歷史意識

문학에 대한 인식과 역사의식이 체계적인 줄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詩, 序, 書 등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살필 때 어느 정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문학에 대한 인식은 詩에 대한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雲寺小話小序’(권 10), ‘古樂府序’(권 4), ‘漢城樂府小序’(권 10), ‘答黃聲汝(권 9)’ 등에 나타난다. ‘雲寺小話小序’에서 여러 詩友들과 唱和를 하면서

지내는 상황을 말하고 雲寺小話詩(권 1)의 내용이 大雅遺風이라고 지적하면서, 雪堂 李正煥의 말이라고 전제하고 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시에는 진색과 진향이 있다. 향이 지나치면 색이 작고 색이 성하면 향이 얕다. 향과 색이 온전하면 시는 곧 화려함을 갖춘다.”⁴⁾

시에서 色과 香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 분위기와 관련 된다고 하겠다. 色과 香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바람직한 시의 모습이라는 인식은 色의 갈래와 풍기는 분위기가 온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원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음 ‘古樂府序’에서는 ‘樂府’의 음악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音響의 節을 모르면서 흥내만 내는 것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동방의 樂이 무너진 지 오래다.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시에 종사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역시 음향의 절을 잃어버리고 풍류가락이라 이름하는 향산사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솔직히 5음과 청탁의 속함을 모른다. 이것을 보는 사람도 혹시 율을 지음에 어긋났다고 하지 않으려는지.”⁵⁾

자신의 고악부에 대한 설명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악부의 형식과 성격까지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漢城樂府小序’(권10)에서 소경의 악사가 치고 드는 소리에 기대어 漢城樂府 28장을 지었는데 모두 方響과 古調를 쓴 것이 많으며, 聖代의 風謠 중에서도 취한 것이 있다⁶⁾는 설명은 고악부의 첫머리에서 제시한 악부의 성격에 관한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答黃馨汝(권 9)’에서는 황성여의 논의에 대한 답의 형식을 빌어 風雅의 성격과 노래 부르고 읊조리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펴려

4) 詩有眞色眞香 香過則色小 色盛則香淺 香色全而詩乃備靡…(用里集 卷十 雲寺小話小序).

5) 吾東方之樂壞久矣 至於操觚家詩家之類 亦失其音響之節 族號爲能香山詞者 率不知五音清濁之屬 覽此者 或不以違制律之乎(用里集 卷四 古樂府).

6) 依響師拍担之聲 爲漢城樂府二十八章 蓋用方響古調數也…且於聖代風謠之什 或不無一二采取云(用里集 卷十 漢城樂府小序)

하고 있다. 시에서의 가르침은 효용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風雅에 대한 견해는 聖代에 대한 연결과 기교보다는 뜻을 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⁷⁾

역사의식은 ‘聞西學盛行憂憤有作(권 1)’, ‘讀史有感(권 1)’, ‘聞惟歌聖也(권 3)’ 등의 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聞西學盛行憂憤有作’은 서학에 대한 근심·걱정을 표현한 것인데 19세기 사회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지내던 士林에게 있어서 西學의 성행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大道如今莫挽還 지금과 같은 대도는 머물러 돌리지 말라
 獸蹄鳥跡遍人寰 짐승과 새의 자취가 사람 사는 곳에 퍼졌다
 君臣父子倫相錯 군신 부자의 윤리는 서로 어긋나
 土賈農工業不關 선비 상인 농부 장이의 업은 서로 판재없다
 假使出於三代上 설령 삼대 전에 나게 한대도
 幾何容得兩儀間 어느 정도 하늘과 땅을 용납할 것인가
 固知闕廓非難事 진실로 열고 넓힘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지만
 祗爲無謀肉食班 다만 육식행렬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

서학의 도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단순한 부정·비방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서학의 무리를 짐승과 새로 보고 있다는 관점, 문호를 개방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제국주의의 음모가 두렵다는 이해는 바로 다른 세계관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학문의 방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둘째 수에서는 자신의 삶의 문제와 학문의 방법에 대한 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讀史有感(권 1)’은 중국의 역사를 읽고 난 다음에 느낀 심회를 표현한 것인데 자신의 처신 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7) 詩之教亦大矣 十二國風 三唐樂章未必皆貼裏語 而適足以感發懲創則 吾儕之聞酬謾詠 大都出於歌詠 聖代何渠不爲賁飾 風雅之一事耶 工拙間亦各言其志 未知以爲何如(甬里集 卷九 答黃聲汝)

香岫煙濃漏白殘 산봉우리 연기와 안개는 새어 흰 빛을 남기고
 讀書書盡夜闌干 독서에 책은 밤 난간에 다하네
 靑牛不信逃周史 관우를 못 믿어 도망간 주나라 역사
 丹鼎空傳化劉安 단정은 헛 전해 유안이 되었다.
 整置蓮蘆無定着 아침군을 깊은 곳에 두고 정착함이 없다
 角分蠻觸有餘寬 뿔이 부러져 싸움이 되고 관용을 남기다
 一杯今古贏輸錯 한판에 예와 이제가 승부가 엇갈려
 留待來人局外看 머물러 다음 사람을 기다려 바깥을 보노라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루쟁과 권모술수에 의해 엉뚱한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된데 대한 느낌을 적은 것이다.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각오에서 희망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희망마저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方外人(국외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는 심각한 고민을 강요하는 것이다. 밤새워 읽은 역사에서 느끼는 감정이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라면, 한 판의 승부에 의해 역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냉철한 인식의 문제를 필요로 한다.

3. 詩史詩와 樂府의 世界

1) 東國詩史

東國詩史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쓴 서술서정시(Erzähllyrik)이다.⁸⁾ 전부 19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편은 역사로서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용은 단군신화에서부터 1866년 병인양요까지의 史實에 대한 기술로 되어 있는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느낌을 서정시의 형태로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자체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서정시라고 볼 수 있다. 19개의 단락은 모두 상이한 분량을 보이며 각 단락은 연속적인 역사적 사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詠史詩, 詠史樂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19세기 후반의 병인양요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사의 전개에 대한 卍里의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의 폭이 說話라든

8) 沈慶昊, 앞의 논문, p. 20.

가 野史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단군신화에 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한다.

國於箕尾分 나라가 기의 끝에서 갈라져
大小曆數同 크고 작게 몇 번씩을 겪고
首出丹陵聖 단릉에서 성인이 나시어
神人位海東 신인이 해동에 자리하였다.
念昔香山樹 신단수를 생각하여
熊來祝桓雄 곰이 와 환웅에게 빌기에
靈丹生變化 환약이 변화를 일으켜
名岳降精英 이름있는 산에 정영이 내리시어
檀君長民號 단군이 백성의 이름을 길게
朝鮮有國稱 조선이라 나라이름 이르시다
傳至商丁時 전하여 사람에게 이를 때
去去阿斯達 아사달에 가시도다
壽享千四旬 수누리기 천사순에
無或齊東說 믿을 수 없는 의심이 없도다.

모두 5言古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천상적 질서와 지상의 삶을 이어주는 매개항으로서 곰의 설정은 단군신화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약(靈丹)이 변화를 일으켜 단군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건국신화로서의 단군신화를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詩史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족사의 전개에서 뿐만아니라 시인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범주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혹시나 의심을 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바로 신이로운 사실에 대한 의심을 말함이며 이러한 의심에서 벗어나 신성함을 본질로 삼는 신화에서 민족사의 출발을 삼으려는 의지를 본다.

其二에서는 箕子朝鮮에 대하여 그 文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其三에서는 馬韓의 成立에 대해, 其四에서는 變遷과 進遷에 대해, 其五에서는 韓王에 대해 각각 기술하고 있다.

其六에서는 新羅와 駕洛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赫居年十三 혁거세 열세 살에
 臨御號西干 왕위에 올라 서간이라 이름하고
 時值五鳳際 때는 오봉의 끝이라
 位爲六部尊 6부의 존장들을 세워
 得姓瓠呈瑞 락의 모양에서 성을 얻었다
 納配井闕英 아내는 우물의 알영
 傳至井二世 이어 22 세
 智證移國名 지증왕에 이르러 신라로
 祭農先後亥 해일에 제사지내고 농사일
 置官紅白幢 홍동 백동의 관리두고
 銅鐘聞百里 구리 종소리 백리까지
 金城壯七重 금성은 일곱겹이나
 埋兒得異鍾 아이 묻고 얻은 종은
 孫順孝爲旌 손순의 효를 기리기 위한 것
 遇賊來鬼兵 적이 오자 귀신 병사들
 長陵默效靈 냇길으로 몰래 효험을 보이고
 神文龜岬笛 신문왕의 바위 위에 피리는
 萬波隨聲息 온갖 근심이 소리따라 멈추네
 旁他鑿石椎 방타(방이?)가 돌틈에서 얻은 방망이는
 百物如意得 모든 것을 뜻대로 얻도다.
 脫解檣於海 탈해는 바다의 궤에서
 首路卯自天 수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多是吊詭說 지극히 기이한 일이 많아
 未必彫史傳 역사로 엮지 못했다

신라의 건국에서부터 설화를 중심으로 詩史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삼국유사의 설화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正史의 입장보다 각종 설화를 중심으로 민족의식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朴赫居世神話의 내용과 闕英과의 결합, 소리가 널리 퍼짐을 의미하는 鍾의 상징성, 孫順埋兒의 孝說話, 竹葉軍, 萬波息笛, 金椎說話(旁他說話), 탈해, 수로의 내용까지 서술하고 있으며, 기이한 일들이 많다고 인정하여 정식 역사로 엮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신라의 建國에서부터 역사 전개에 중점을 說話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신라의 역사, 문화를 政治

의 사건을 중심으로 나열하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神話에서부터 叙事構造를 보여주는 설화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는 詩人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각종 설화의 상세한 내용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신라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 文化的인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서술의 기준을 알 수 있다.

其七에서는 佛敎의 전래와 그 이후의 佛敎文化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역사적 사실을 보이고 있는데, 이차돈의 순교와 법흥왕의 불교 진흥에 관한 내용 등에 이어 김유신에 관한 이야기와 朴堤上의 지절이 증점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其八에서는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해모수의 천강, 하백의 딸인 유화와의 결합문제와 하백과의 결투, 유화의 버려짐, 해부루의 금와회득, 금와와 유화와의 결합, 주몽의 출생, 주몽의 남하, 고구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건국신화의 내용이 나온다. 其九에서는 보장왕 이후의 고구려와 을지문덕의 수나라 격퇴 및 신라에의 병합까지를 다루고 있고, 其十에서는 온조의 백제건국, 서동설화, 의자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앞의 新羅와 高句麗에 비할 때 소략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其十一에서는 후고구려-태봉과 건원(建元)의 후백제에 대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궁예의 후고구려에 관한 기술은 建國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건원의 후백제에 관한 내용을 본다.

紅娥逢紫男 홍아가 자색옷 남자와
生子號甄萱 아들을 낳아 건원이라 이름하다.
來乳林下虎 수풀아래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이고
留線瓦間蚯 기와 사이 지렁이가 줄을 남기다.
力拔鳥於谷 오어목을 힘으로 뽑아
疑斃曷伊侯 갈이성 성주를 넘어뜨릴지 의심하다.
行凶犯鮑石 모석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범해
歸命食楊州 결국 양주의 식읍을 얻다
有子如神劔 神劔과 같은 아들이 있어
因寺竟孰尤 절에 간혀 마침내 절름발이 신세
疽亡晉天福 석진의 천복연간에 죽으니
後濟四十秋 후백제 40년이라

견훤의 출생에서부터 후백제의 건국, 견훤의 활약, 후백제의 멸망까지의 기술인데 견훤의 출생에서 夜來者傳說⁹⁾을 말하고 있으며 견훤의 힘에 대하여는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다. 견훤의 비극적 삶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극성은 영웅전설에서 주인공의 비극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세계의 우위에 의한 자아의 비극성은 견훤의 경우에 많은 示唆를 한다.

其十二는 고려의 건국에 대한 것이다. 高麗를 山高水麗之意로 파악한 것은 高句麗에서 왔다는 것과 약간 다른 이해라고 하겠다. 其十三은 高麗의 문화 전반에 관한 것인데, 佛敎, 香徒 등에 관한 것과 불행한 징조를 나타내는 虎患, 毒蟲의 피해까지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고려의 문화에 관하여 記述한 중에서 조금 예를 들도록 한다.

成徒萬佛香 무리지어 만불향도
爲堂八聖禪 당이 되어 팔성선으로
悶淚語不諱 민식이 숨김없이 말하되
破國虹沙彌 나라를 깨 것은 홍사미라
忠烈迷不悟 충열왕은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고
眩人陶瓦龜 백성을 현혹시킨 도와구
夜殿登虺虎 밤에 대명궁에 호랑이가
春雨降毒蟲 봄비에 독충이 내리다

불교 및 향도의 폐단과 문란으로 인하여 고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暗示가 깔려 있다. 天文의 변화, 왜구의 침입, 원나라의 부마국으로서의 수모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고려는 조선에게 자리를 넘겨야 할 입장에 놓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쪽이 이성계로 대표되는 하늘의 뜻이 내린 세력(天意有所屬)¹⁰⁾이라고 보고 있다.

其十四는 조선의 건국과 거기에 따르는 文化的 배경, 龍飛御天歌에까지 언급하고 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왕조의 운이 계속되기를 비는 입장에서의 龍飛御天歌의 意義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其十

9)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출판부, 1978, p. 136.

10) 用里集 卷四 東國詩史 其十三.

五는 端宗시대부터 士林에 이르기까지의 왕조사의 불행한 투쟁들에 대하여 記述하고 있는데, 士林의 입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端宗의 비극적인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단종의 비극과 사육신, 생육신의 충절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士林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名分과 正名의 논리¹¹⁾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其十六은 中宗시대의 일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其十七은 先朝시대의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동서봉당과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其十八은 임진왜란에 관한 내용이다. 뒷부분을 인용하도록 한다.

錦山殉義將 금산에서 목숨바친 장수
泗川泣舟師 사천에선 충무공이 돌아가셨네
矗石樓中誓 축석루에서 한 맹세
磊筆壯士詩 크고 뛰어난 세 장사 시
晉陽軍前檄 진양에서 군대를 모아
凄切復讎辭 처절하게 복수를 하다
幸有都體察 다행히 도체찰이 있어
軍國倚如城 군대와 나라가 성과 같이 기대어
干戈稍底定 전쟁은 점점 평정되고
日月復見明 해와 달은 다시 밝아지고
好慰西狩返 넓은게 좋아 서쪽 임소에서 돌아오고
勲業上青冥 세운 공은 푸른 하늘에 드높다

임진왜란의 경과와 활동했던 사람들의 행적을 나열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로 도체찰의 역할을 들었는데, 이는 임진왜란의 평정에 서애 유성룡의 공이 지대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其十九는 인조반정, 병자호란 등과 병인양요까지를 다루고 있다. 병인양요는 用里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과 인식이라는 점에서 당대 사회에 대한 用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11) 韓永愚, 朝鮮前期의 社會思想, 한국일보사, 1976, p. 98.

向後三百年 그 이후 삼백년에
 玉帛交相錯 예물에 서로 어긋나
 間者江都事 요사이 강화도 일은
 盜弄潢池赤 도적이 좁은 땅을 멋대로 붉게
 雙難李尙書 힘겨운 이상서는
 談語堪凄惻 마지막 말에 매우 슬퍼하며 탄식하고
 從茲輦轂下 이 부리를 따라 서울로
 何物異樣徒 어느 것이 다른 무인인가
 萬國從合說 만국종합설은
 於古有是無 예로부터 옳음이 없노라.

병인양요(1866년)에 대한 기술은 강화도에서 일어난 녹리 당대의 사건인데, 여기에서 卍里는 서양인을 도적이 무리로 대하고 있고 서양인의 주장에 대하여 예로부터 옳지 못한 論理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歷史意識에서 살핀 ‘聞西學盛行憂憤有作’의 느낌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살핀 녹리의 東國詩史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史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史實을 바탕으로 羅列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三國時代의 역사에 대해서는 說話를 중심으로, 高麗時代의 역사는 佛敎와 香徒 등의 문란을 다루었고, 조선시대의 역사는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樂府詞

卍里의 樂府詞는 浣溪沙로부터 風入松에 이르기까지의 36편이다.

모두 古樂府에 대한 지향을 보이고 있으며 당시에 유행하는 民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卍里의 경우 악부사는 黃基鍾과 화답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많으며, 王淵諸勝의 예와 같이 叙景의 방식을 택한 악부사도 있다. 李家源은 卍里의 樂府詞가 詞의 체에 있어서 극히 쇠퇴한 동시에 老境美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¹²⁾ 이러한 경향은 卍里의 사고의 형성이나 삶의 환경이 지니는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

12)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p. 323.

리라 생각한다. 19세기 후반까지도 주자학적 세계관 이외의 다른 세계관과 밀접한 대응을 보이지 못했던 지역적 특성과, 여러 詩友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여유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면에서 음악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악부사를 지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선 ‘浣溪沙’를 보도록 한다.

佳氣濃如琥珀盃 산천기운이 질기가 호박잔 같고
 百花陰裏好亭臺 온갖 꽃이 우거진 정대가 좋아라
 玉人春困夢初回 미인의 졸음에 꿈이 처음 돌아가네
 莫遣漁郎紅水去 어부를 보내지 말라. 홍수가 간다
 恰如情友翠禽來 다정한 벗 같이 푸른 새가 오고
 此間幽興有誰裁 이 사이 깊은 흥은 누가 만들었나.

浣溪沙는 七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賞春이라는 副題를 가진 詞調다. 봄을 맞이하여 자연의 고요함과 시냇물이 흐르는 가운데 봄졸음에 겨운 여인의 모습을 노래하고 새가 날아와서 함께 어울리는 광경을 서정의 情調를 벗어남이 없이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악부사는 民歌의 노래 곡조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살핀 東國 詩史와는 별개의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다음 ‘鳥夜啼’는 약간의 애상적 정조를 보인다.

遠寺鐘聲依約 먼 절의 종소리가 어렴풋하고
 小簾河影橫斜 조그만 발에 강 그림자 비스듬히 드리워
 爲裁春服誰 마름질하여 봄옷은 누구에게
 家女啾啾夜鳴梭 가녀가 탄식하며 밤에 북이 운다
 籬角何來流水 울타리 끝 흐르는 물 어디에서
 屋頭經宿明霞 집 위의 하룻밤을 밝게 비치고
 臥聽山鳥時 누워 새소리 들을 때
 驚栖應損晚開花 놀라 깃들기에 늦은 꽃 피네

새가 밤에 운다고 설정한 것은 비극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첫 수의 마지막에서 女人의 탄식은 길쌈하는 행위와 여인의 생활에서의 분위

기와 함께 고통을 안고 있는 듯한 소리로 들린다. 이에 비해 들쭉수는 새의 울음과 늦은 꽃과의 연결을 보이는 서정의 세계로 나타난다.

다음 '漁歌子'는 本意라는 부제를 가진 詞調이며, 漁父노래의 전승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春山青	봄산은 푸르고
春水碧	봄물도 푸르다
東風搖漾木蘭船	샛바람은 목란배에 흔들흔들
草娉娟	풀은 그윽하고
蘆白白	갈대는 희디희다
簾外鴛鴦眠熟	노 밖의 원앙은 잠이 깊었다
露葭朝	갈대에 아침이슬
煙渚夕	물가에 저녁연기
逆廻不見人更邈	돌아서서 사람이 다시 멀어짐을 못보고
月盈湖	달은 호수에 가득
星滿嶺	별은 자갈밭처럼
惟聞聲聲漁笛	다만 어부의 피리소리만 들리누나

3, 3, 7, 3, 3, 6 : 3, 3, 7, 3, 3, 6 으로 이루어진 雙調이며 삶의 현장으로서의 어촌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린 假漁翁의 세계를 보인다. 첫 수가 분위기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면 들쭉수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현상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漁父노래의 전승에서 고산 윤선도의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도타'¹³⁾의 세계와 맥이 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水調歌頭'의 첫 수를 보도록 한다. 和贈黃聲汝라는 표제 중의 하나다.

詩酒諒非意	시와 술은 진실로 뜻이 아니고
聊用破愁城	애오라지 근심을 없애는데 쓴다
莫將時事干我	세상일로 나를 막지 말라

13) 尹善道, 孤山遺稿, 漁父四時詞 秋詞二.

世已棄君平 세상은 이미 임금의 평정을 버리고
 粧點一區泉石 한 구역 자연을 단장하고나
 措置幾畦杞菊 쌓아둔 몇 폐기 밭과 소태나무 국화
 歸臥小樓明 돌아와 누우니 조그만 누각이 밝다
 復得秋塘老 다시금 추당의 늙음을 얻으니
 竿尺道深情 장대는 깊은 정을 말하는구나.

水調歌頭는 5, 5, 6, 5, 6, 6, 5, 5, 5 : 5, 5, 6, 5, 6, 6, 5, 5, 5 로 이루어진 雙調이며 모두 96 字에 이르는 慢詞다. 여기에서는 첫 수(前段)만 제시했다. 自然에 묻혀 지내는 삶의 정조를 읊은 것인데 秋塘 黃鶯鍾(聲汝)과의 깊은 교유를 짐작하게 한다. 嶺南의 樂府詞 중에서 많은 작품(36 편 중에서 13 편)이 黃鶯汝와 서로 화답하거나 바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詩友 중에서 황성여의 뜻과 잘 통했다는 의미도 되고 古樂府를 지향하는 詞로서의 樂府詞에 대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보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된다. 用里의 水調歌頭는 自然에 묻혀서 詩酒로 생활하는 詩友들의 생활을 읊은 것이다. 正형의 틀에서 벗어나 노래부를 수 있는 형식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다.

다음 ‘千秋歲’는 秋千이라는 부제와 贈黃鶯汝라는 표제하의 작품인데 단오의 그네뛰기에 관한 내용이다.

彼嬋媛女 저 끌어당기는 여인의 모습은
 也是神仙侶 신선과 짝을 이루어
 燕似蹴翹似舞 물찬 제비같이 춤추는 나비같이
 雙鉤黃柳榦 꼭 잡은 황류기둥은
 百尺青絲纒 백 척의 푸른 실이
 飛向上 위로 날고
 今宵定鬧瑤皇府 오늘밤 고평함은 아름다운 황부다

이 千秋歲는 ‘端陽日憶黃鶯汝’(권 3)의 詩와 같은 입장에서 읊어진 것인데 千秋歲는 악부사의 형식이고 端陽日憶黃鶯汝는 七言絕句로 되어 있다. 단오를 맞이하여 단오일에 행하는 각종 민속놀이와 관련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적은 것이며, 黃鶯汝와 詞와 詩의 表現에 대해 서

로의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¹⁴⁾ 둘째 수의 ‘북과 같은 잔월이 나무 위에 높이 걸렸다(一梭殘月空懸樹)’는 구절은 행사가 끝나고 난 뒤의 쓸쓸한 정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端午를 맞아 지난날의 추억과 아쉬움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이 구절에 대해 黃聲汝는 탄식의 소리라고 했다.

다음 ‘玉淵諸勝’의 표제 아래 ‘靑玉案’, ‘臨江仙’ 등의 8편의 작품이 있다. 이는 玉淵亭 주변의 여러 곳을 악부사로 읊고 있다는 점에서 叙景의 악부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風入松’의 둘째 수를 보도록 한다.

清如磐釋老如仙 탐기가 경쇠같고 늙기는 신선같이
 踈影渡長川 가시나무 그림자 긴 내를 건너고
 遙憐百卉風霜後 멀리 온갖 풀 바람서리 후를 어여뵈
 同汝者梅士竹賢 너와 같은 매화선비와 내나무 어진이
 分付蒼江白鷺 푸른 강의 백로와 나누어
 不教閒雀來眠 한가한 까치 와서 자기를 가르치지 않네

‘萬松洲’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소나무가 가득 찬 물가의 풍경을 읊은 것이다. 여러 곳의 경치를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다른 자도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 숲에 불어오는 바람을 대하면서 느낀 감회가 매우 신선하며, 四君子의 하나인 梅, 竹과 같은 입장에서 소나무를 보고 백로와 까치에 대한 인식과 소나무를 연결시켜 읊고 있다.

用里的 樂府詞는 일상 생활에서의 느낌과 특히 秋塘 黃聲汝(基鍾)와 교류하면서 주고 받은 내용이 많으며, 자연대상을 다루면서 자연대상의 속성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詩人의 의식과의 幅을 좁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시에 流行하던 民歌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점은 古樂府의 음악적 성격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4) 用里集 卷三, 端陽日憶黃聲汝.

3) 古樂府의 性格

甬里의 古樂府는 대부분 風俗이라든가 文物制度에 관하여 읊은 것이며, 樂府의 성격상 紀俗樂府에 속한다. 소경의 악사가 치고 드는 소리에 의지해서 지었다는 漢城樂府 28장은 바로 서울의 文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古樂府의 첫머리에서 甬里는 우리나라의 樂이 무너진 지가 오래이고 音響의 節을 잃어버려 5음과 청탁의 소속을 모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樂府에서의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¹⁵⁾ 따라서 악부의 형태는 취하고 있으면서 독특한 음악성을 배제하고 擬古樂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古악부의 형태는 택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古악부와는 거리가 먼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함께 내보인 것이다. ‘漢城樂府小序’에서 모두 方響과 古調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산천과 성결의 웅장함을 비롯한 漢城(서울)의 문물을 열거하면서 聖代의 風謠 중에서도 취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樂府가 성대의 풍요에 비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널리 불리어진 노래라는 인식에서 ‘相思曲’부터 보도록 한다.

人道相思能白頭 사람들은 상사를 하면 백두가 된다지만
 相思那得白人頭 상사로 어찌, 백인의 머리가 될까
 頭絲若爲相思白 머리칼이 만약 상사로 흰 색이 된다면
 明月今宵雪幾頭 밝은 달 오늘밤 눈이 몇 머리에.

남녀간의 사랑과 白頭와의 관련에 대한 노래이다. 그리워하는 마음과 머리가 희게 되는 것은 사실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늙도록 그리워해야 하는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상사의 노래는 이미 여러 양식으로 불리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古樂府로 설정한 것이다.

다음 ‘陌頭楊柳詞’는 10수로 이루어진 것인데 버들가지의 모습과 교태를 부리는 女人과를 견주고 있다.

15) 註 5)와 같은 곳.

淡淡風前裊裊身 담박한 바람에 간드러진 모습
 爲何離怨不勝春 이별의 원한에 봄을 못이겨
 章臺白馬誰家子 궁전의 백마는 어느집 아들
 歸有迎門笑語人 돌아와 맞는 문에 웃으며 말하네

軟軟柔肢細細腰 부드러운 가지 가는 허리에
 長亭斜日影飄飄 긴 정자 해는 기울어져 그림자 나부끼고
 鱗渠傲得甚因果 가련한 그 모습은 무슨 인연의 결과
 爲舞春風盡意嬌 봄바람에 춤추며 교태를 다한다.

陌頭楊柳詞는 버드나무=노류장화의 연결로 인한 관습적 인식이 깔려 있으며 그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詩想을 전개하고 있다. 악부의 세계가 노래 불리는 성격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관습의 틀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다음 漢城樂府는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漢城樂府小序’에서 본 바와 같이 聖代의 風謠 중에서도 몇 편을 취해서 서울의 文物과 風俗에 대해 읊은 것이다.

終南如翰漢如弧 남산은 높이 날고 한강은 활과 같아
 山水中間帝王區 산과 물 가운데 임금님 계시고
 聖代昇平年五百 성대의 태평이 오백년이오
 風流文物大東都 풍류 문물은 대동의 도읍이라

남산과 한강의 위용, 궁궐의 모습과 계속되는 태평성대로 풍류가 가장 으뜸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黃堦鐘罷日中欄 임금님 섬돌 종이 파해 해가 난간에
 承相終朝枕六安 서로 이어 마칠 때 자리가 六安이라
 遼海百年塵不動 먼 바다 백년은 티끌도 움직이지 않아
 東山歌鼓古今歡 동산의 노래와 북 고금에 기쁨이라

임금이 베푸는 정치와 그것이 백성들에게 미쳐 노래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勞勞迎送白門前 힘써 맞고 보내기 백문앞에
此路幽燕四百年 이 길로 연경이 4백년이라
一片慕華楣上字 한 조각 慕華는 문미 위에
依然洪武舊時扁 의연한 홍무는 옛날의 현판

중국의 사신을 맞고 보내며, 燕京으로 떠나는 우리의 사신을 보내고 맞는 관문인 迎恩門과 慕華館에 대한 느낌을 적은 것이다. 西學에 대한 인식과 중국에 대한 인식은 대조적이다.

八方漕運漢南倉 관방의 조운이 남창에 모여들고
夜夜天恩護御糧 밤마다 임금님 쌀창고 지키고
雨露黃麻三月下 우로와 황마가 3월간 내려
恩糜均漲萬人腸 은혜로운 죽이 만인의 배에 고무 퍼지네.

당시 조운을 관장하던 삼개나루의 창고에 대하여 읊은 것인데,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여 왕의 은혜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用里的 漢城樂府는 서울에 대한 느낌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인데, 왕의 은혜와 太平時代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以外 用里的 古樂府는 ‘西行雜咏’이라는 題下에 文物과 風俗에 대해 읊은 것을 비롯하여 紀俗樂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4. 詩社의 활동과 詩

用里는 많은 詩友들과 함께 모여서 밤에 이야기를 하거나 그 내용을 詩로 나타낸 경우가 많다. 시의 제목에 ‘—夜話’가 붙어 있는 것이라든지 詩社에 모여서 주고 받은 시들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用里가 활동한 詩社는 조선후기 委巷詩人들의 활동과 같이 전문적으로 시창작에 임하고 詩選을 엮는 등의 활동¹⁶⁾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교류하면서 뜻이 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정도에서 이해하는 편이 타

16) 具滋均, 朝鮮平民文學史, 文潮社, 1948, 成範重, “松石[淵]詩社와 그 文學” 국문학연구 53집, 1981.

당할 것 같다.

늑리가 詩友들과 함께 자리를 한 곳은 蓮桂社, 龍溪社, 龍門社, 素里社, 蓮社 등이다. 蓮桂社는 蔡光禹, 黃守默 등에게 화답하여 바친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배인 이들과 교유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龍溪社는 李彙寧, 李彙載 등에게 화답하여 바친 시가 있다. 한편 龍門社는 李用基, 金世煥 등과 교유하면서 唱和한 곳이고, 素里社는 李用基, 金世煥, 姜運永 등과 함께 시를 읊고 교유한 곳이다. 다음은 素里社에서 읊은 시 중의 하나를 본다.

老去塵愁太上忘 늙으니 티끌 근심 사라져 태상도 잊고
 江山何適不吾鄉 강산 어디인들 내고향 아니라
 畚容巨帙蓮珠炳 침착하고 큰 연주가 빛나고
 擗闥高談玉屑香 변론과 고담은 미사여구로 가득
 曠土已爲泉下客 광사(姜日成: 주)는 이미 지하에 묻히고
 餘生相對隙中光 남은 생애 대하기가 구멍에 빛들기
 評花古城城南閑 옛집에서 꽃을 논하매 성남에 마을이라
 無賴東風滿意涼 버릇없는 샛바람은 자리뜻을 서늘하게¹⁷⁾

늑어서 함께 모인 자리가 반가움에 가득 차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가 안타까움으로 다가선다. 동료 중의 한 사람이 이미 불귀의 객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심한 압박으로 자신의 늙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

한편 蓮社는 黃基鍾(聲汝), 柳進奎(大圭) 등과 교유한 곳인데 甬리에 게 가장 큰 意義를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黃聲汝와의 交遊는 甬리의 많은 樂府詞와 唱和詩, 夜話詩가 있어서 그들 사이의 친밀과 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준다. 다음은 蓮社에서 황기중, 유진규와 함께 지내면서 읊은 시다.

此會邇來苦未圓 이 모임은 요사이 힘들어 둥글지 못해
 老年風味薄於烟 늙은이 풍미가 연기보다 뿔뿔해
 有誰來世知玄草 누가 있어 내세의 현초를 알리오

17) 甬里集 卷二 詩, 素里社會與李季行金遠遠姜海應運永諸昆季三首.

認子前身與白蓮 자식을 믿은 전신에 백련과 함께
 一日清閒猶福力 하루의 한가함은 오히려 복이라
 今宵邂逅亦夤緣 오늘밤 만남은 역시 칭칭감은 인연
 詩章勝似雲綃繪 시가 빼어남은 구름같은 명주실
 將此香山故事傳 앞으로 이 향산의 고사를 전하리¹⁸⁾

이밖에도 ‘與黃聲汝暮訪柳大圭’(권 3), ‘舟墅仲秋與黃聲汝蔡彝叔柳大圭夜話’(권 3) 같은 시가 蓮社를 비롯한 詩社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위에서 본 用里의 詩社 활동은 여러 詩友들이 함께 모여서 唱和를 하면서 自然과 더불어 지내는 기쁨과 서로 노래부르는 흥취 속에 묻히는 분위기를 즐기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뜻이 맞는 詩友들이 서로의 시를 주고 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한 경우인데, 녹리의 경우는 樂府詞를 이러한 詩社의 활동 중에 黃聲汝와 함께 內容을 검토했다고 볼 수 있다.

5. 結 論

用里의 東國詩史와 樂府詞를 중심으로 고찰한 用里文學의 성격은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세기 후반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주자학적 세계관으로 맞선 用里는 詩에 있어서 樂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음악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樂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樂府詞와 古樂府를 지었다.

둘째, 東國詩史는 단군신화에서부터 병인양요까지의 史實을 단편적인 사실에 의하여 기술한 서술서정시로 삼국시대의 역사는 說話에 의거하고 고려시대에는 佛敎의 폐단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역사는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셋째, 樂府詞는 民歌에 바탕을 두고 지었으며 원숙한 경지에 이르고, 黃基鍾과 교류하면서 화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넷째, 古樂府는 紀俗樂府의 성격을 지니며 특히 漢城樂府는 서울의

18) 用里集 卷三 詩, 蓮社與黃聲汝柳大圭進奎.

文物과 風俗에 관하여 읊은 것이다. 고악부에서 녹리는 자신의 악부가 聖代의 風謠에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詩社의 활동은 詩友들과 交遊하면서 自然 속의 흥취와 人情에 관하여 읊은 시들이 많다. 시사의 활동은 서로의 詩를 교환하면서 唱和했고 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비롯 夜話詩도 읊었다.